

2023년 4차 발굴조사

군산 미룡동 고분군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2023. 12.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I 조사 개요

- 조사명 : 군산 미룡동 고분군 4차 발굴조사(제2020-1739호, 변경 허가)
- 유적명 : 군산 미룡동 고분군(비지정)
- 조사지역 : 전라북도 군산시 신관동 290-2 군산대학교 내 일원
- 조사기간 : 2023.04.03.~2023.12.19(실 조사일수 47일)
- 조사면적 : 2,100㎡(발굴:1,100㎡, 시굴:1,000㎡)
- 조사목적

- ◇ 2022년 서남쪽 평탄지 시굴조사(기존 허가)에서 확인된 유구에 대해 발굴조사를 실시, 성격 및 조성 시기 등을 밝힘
- ◇ 서북쪽·동쪽 경사면에 대해 시굴조사를 실시, 유구의 분포 현황을 추가로 파악

- 조사단 구성 :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겸임)	곽0근(군산대학교 가야문화소장, 역사학과 교수)
조사원	조0일(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준조사원	유0춘(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선임연구원)
보조원	김0지(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학예연구원)
	박0수(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학예연구원)

- 위치와 주변 유적

- 미룡동 고분군은 現군산대학교 음악관 남쪽의 ‘관여산(觀如山)’ 정상부와 능선에 위치
- 고분군 서쪽은 대부분 간척지로 이루어져 있어 간척 이전에는 고분군 인근에 해안선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짐작, 고분군 축조 집단은 해양과 관련 있을 것으로 추정
- 과거 해안선을 따라 패총 산재

- 조사경과

- 2001년 군산시 문화유적 분포지도를 발간하기 위해 실시한 지표조사를 통해 확인, 당시 ‘말무덤’이라 불리는 고분 10여 기가 산 정상부를 따라 분포하는 것으로 보고
- 2013년과 2016년·2022년에 1~3호분에 대한 3차례의 발굴조사 진행, 3기의 고분 모두 가장자리에 주구를 두른 마한 무덤유적에 해당, 1호분 2~3세기, 2호분 3세기 중반~4세기 전반, 3호분 3세기 중반 무렵에 축조된 것으로 판단
- 발형토기·원저단경호·평저직구호·연질무구연토기·무구연호·양이부호 등의 토기류와 따비 철도자 등의 소형철기 출토

II 조사지역의 주변 환경 및 고고·역사적 배경

1. 자연·지리적 환경

금강 하구에 자리 잡은 군산은 서해안 중앙에 자리한 항구 도시이다. 북쪽으로는 금강을 건너 충남 장항읍, 서천군 등과 맞닿아 있으며, 동쪽으로는 구룡지대가 발달한 익산시와 마주하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만경강을 사이에 두고 비옥한 호남평야를 그 배후에 끼고 있다. 그리고 서해 도서지역은 개야도와 연도가 충남 서천군 마서면의 연해, 어청도는 보령시 오천면의 외연 열도, 고군산군도와 비안도는 부안군 계화면과 김제시 광활면 사이의 동진강 하구와 접해 있다. 이처럼 서해와 접해 있으면서 금강의 관문에 위치한 지정학적인 이점은, 군산이 교통의 요지를 이루면서 일찍부터 다른 지역에 비해 선진지역으로 발전하는데 큰 디딤돌이 되었다.

군산은 지형상으로 볼 때, 동북쪽의 구룡성 산지와 서남부의 구룡지대, 그리고 그 사이에 위치한 중앙부의 저지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북쪽의 구룡성 산지는 금남정맥에서 갈라진 한 갈래의 산줄기가 봉화산, 망해산, 망경산, 오성산 등으로 연결되면서 금강을 따라 서해까지 뻗어 내렸다. 서부의 구룡지대는 장계산, 월명산, 우치산, 영병산 등으로 이어지는 산줄기가 서해의 해풍으로부터 군산을 보호하는 방풍막이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다. 중앙부의 저지대는 북쪽으로는 금강과 경계를 이루며 남쪽으로는 만경강을 사이에 두고 호남평야와 경계를 이루고 있어서 군산시의 주거 환경으로서의 공간을 점유하고 있다. 이 지역은 개정들과 대야들, 그리고 미장들과 선제들 등의 충적평야와 방조제를 축조하여 간척지로 만들면서 생긴 해안평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오식도와 비응도에 이어 현재 물막이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새만금사업으로 고군산군도의 섬들을 매립하여 육지와 연결하면 그 공간이 더욱 확장될 예정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군산의 면적은 376,31km²로 전라북도 14개 시·군 가운데 전주시 다음으로 좁다.

군산의 기후는 흔히 바람의 고향이라고 일컫는 데서 알 수 있듯이 계절풍이 심하게 불어 바다와 인접해 있는 지역으로서의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특히 봄철의 계절풍과 더불어 나타나는 황사현상과 이상 건조현상은 비단 이 지역만의 현상은 아니지만 군산의 경우 그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더욱 두드러지게 볼 수 있는 현상이다. 군산의 연평균 기온은 12~13℃의 분포를 보여, 전국의 연평균 기온 6~16℃의 분포에 비하여 비교적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군산이 우리나라의 남부지방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산의 연평균 강수량은 1,180mm로 전국의 연평균 강수량 1,000~1,800mm에 거의 근접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2. 고고학적 배경

1) 지표조사 현황

총래의 지표조사에서 축적된 고고학 자료를 가지고 군산지역 문화유적의 분포양상과 그 성격을 가늠해 볼 수 있다. 군산지역에는 대략 650여 개소의 다양한 문화유적이 밀집 분포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문화유적은 선사시대부터 역사시대까지 광범위한 기간에 걸쳐 조성된 것

으로 마한부터 백제까지의 것이 절대량을 차지한다. 이들 문화유적을 찾고 알리기 위해 꾸준히 진행된 지표조사의 현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군산지역에서 처음으로 지표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1985년이다. 그 해 옥구군을 대상으로 실시된 문화재 지표조사¹⁾에서 많은 문화유적을 찾는 값진 성과를 거두었다. 당시 고군산군도부터 서수면까지 옥구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지표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옥구읍과 옥산면·회현면·대야면 등 일부 지역이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1988년 군산대학교 이세현 교수가 군산시 신관동과 성산면·나포면·서수면·임피면 지역을 대상으로 정밀 지표조사를 펼쳐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다²⁾. 즉 지석묘와 고분군, 패총, 유물산포지 등 80여 개소의 귀중한 문화유적을 찾아 학계에 보고했다. 특히 격자문과 승석문이 타날된 적갈색 연질토기편이 다량으로 수습된 상당수의 패총과 유물산포지가 분포된 것으로 밝혀져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한편, 서해안고속도로³⁾와 군장국가공단⁴⁾ 등 개발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이들 지역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도 활기를 띠었다. 서해안고속도로 건설공사 구역만을 대상으로 실시된 지표조사에서 패총과 생활유적, 분묘유적 등 다양한 문화유적이 조사되었다. 군장국가공단조성부지내 지표조사에서는 가도와 오식도, 노래섬, 띠섬, 비응도 등 도서지역에서 빗살무늬토기편부터 회청색 경질토기편까지 다양한 유물이 수습되었다. 그리고 고군산군도의 선유도와 내초도·개야도에서도 빗살무늬토기편과 적갈색 연질토기편, 회청색 경질토기편, 청자편과 백자편 등이 수습되었다. 당시까지 전북지역에서 출토된 예가 많지 않았던 신석기시대의 빗살무늬토기편이 인근 도서지역에서 상당량 수습되어 많은 주목을 받았다.

군산지역 문화유적의 분포양상을 심층적으로 밝힐 수 있는 뜻 깊은 지표조사가 1994년 이루어졌다. 군산시로부터 학술용역비를 지원 받아 통합되기 이전의 군산시와 옥구읍·옥서면·옥산면·회현면·개정면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⁵⁾. 당시까지 이들 지역은 한 차례의 지표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아 문화유적의 존재여부와 관련된 최소한의 내용조차 파악되지 않은 상태였다. 당시 지표조사에서는 지석묘군 1개소와 분묘유적 14개소, 패총 24개소, 유물산포지 30개소 등 70여 개소의 문화유적을 찾는 의외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들 문화유적의 존재를 통해, 백제가 진출하기 이전까지 군산지역에 기반을 두고 발전했던 토착세력집단의 실체와 그 발전과정을 밝힐 수 있는 결정적인 고고학 자료를 제공했다.

이밖에도 1999년부터는 각종 건설공사 구역을 대상으로 지표조사가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군장산업단지진입도로공사 구간내 문화재 지표조사⁶⁾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30여건의 지표조사가 실시되었다.

끝으로, 2001년 일 년 내내 실시된 문화재 지표조사도 빼 놓을 수 없다. 향후 군산지역에서 국토이용계획과 도시계획, 공단조성, 택지개발, SOC확충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예기치 않게 파괴될 우려가 있는 문화유적에 대한 최소한의 학술자료를 수집하는데 목적을 두고

1) 群山大學 博物館·沃溝郡, 1985, 『沃溝地方의 文化遺蹟』, 群山大學 博物館 學術叢書 第一冊.

2) 李世賢, 1988, 『錦江 下流地域 文化財 精密 地表調査』, 『群山大學 論文集』 第22輯, 367-433쪽.

3) 尹德香, 1991, 『西海岸 高速道路 地表調査 報告書』 蝶山里-余方里와 大明里間, 全羅北道·全北大學校 博物館.

4) 尹德香외 8명, 1993, 『群長國家工團 造成地域(群山地區) 地表調査 報告書』, 全北大學校 博物館·韓國土地開發公社.

5) 群山大學校 博物館, 1995, 『群山市의 文化遺蹟』, 群山市.

6) 원광대학교 박물관, 1998, 『군장산업단지 진입도로(군산-대전간)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추진되었다. 그 해 군산지역을 대상으로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653개소 문화유적의 위치와 그 분포범위가 표시된 『전북 군산시 문화유적 분포지도』⁷⁾가 발간되었다. 이 지도에는 선사시대부터 역사시대까지의 다양한 문화유적이 지역별로 상세하게 소개되어, 군산지역 문화유적의 분포양상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다. 종래의 지표조사에서 축적된 고고학 자료를 근거로, 군산지역은 ‘야외박물관’이라 불릴 정도로 선사시대부터 역사시대까지 그 성격이 다른 다양한 문화유적이 밀집 분포된 ‘문화유적의 보고’로 알려지게 되었다.

2) 발굴조사 현황

종래의 지표조사에서 보고된 문화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도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1993년 군산 조촌동 택지개발 조성구역에서 처음 시작된 발굴조사는 주로 구제발굴 차원에서 활발하게 추진되었으며, 서해안고속도로와 군장국가공단과 군장산업단지진입도로, 전주권계통광역상수도사업, 장항-군산간철도연결사업구간, 금강(Ⅱ)지구 옥구1-1·2·3공구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구제발굴은 대체로 공사 구역에 포함된 지역만을 대상으로 대규모로 이루어져 군산지역에 밀집 분포된 문화유적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적지 않게 기여했다. 반면에 대야면 산월리에서는 순수한 학술발굴에 목적을 두고 세 차례의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지금까지의 발굴조사에서 축적된 고고학 자료를 가지고 군산지역 문화유적의 특징을 유구와 유적별로 나누어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로, 군산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조사된 구석기유적으로 군산 내흥동 유적⁸⁾이 있다. 철도청 중부건설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장항-군산간 철도연결공사 구간 내에 위치한 군산 내흥동 유적은 구석기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성격의 유구와 유물이 확인되었다. 이 가운데 구석기유적으로 Ⅲ·Ⅳ지점의 곡간부에서 확인된 구석기시대의 문화층과 유기물포함층이 조사되었다. 우리나라 중기~후기 구석기시대에 해당되는 신생대 제4기 갯신세의 유기물포함층은 토양 췌기구조가 발달한 황갈색 사질점토층의 하부에 형성되었는데 방사성탄소연대측정 결과 B.P. 40,000년~B.P. 35,000년 정도까지 지속적으로 퇴적되어 형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퇴적층 내부에는 가공하지 않은 목재편과 지엽류 등이 양호한 상태로 남아있는데, 이는 현재까지 조사된 동아시아의 어느 다른 유적들과 비교하여도 결코 뒤지지 않는 자료로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주변지역의 전반적인 후기 구석기시대 이전의 자연환경을 복원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판단된다. 참고로 시굴조사 시 수중분석결과 유기물퇴적층내의 목재는 대부분 소나무로 확인된 바 있으며, 유기물퇴적층의 상면에 형성된 구석기시대 문화층에서는 석영제·자갈돌 격지를 비롯한 후기 구석기시대의 석기들이 출토되었다. 유물들이 동일면에서 각각 인접하여 출토되었으며 주변에는 다양한 크기의 석영암들이 넓게 분포하고 있어 당시 구석기인들의 생활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이 외에도 유적 전반의 췌기구조 상부 퇴적토와 지표상에서 유문암제·석영반암제·자갈돌 격지와 몸돌, 굽개 등이 다수 확인되었는데, 조사내용으로 미루어 유적의 전반에서 구석기시대의 생활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7) 群山大學校 博物館, 2001c, 『全北 群山市 文化遺蹟 分布地圖』, 群山市.

8) 충청매장문화재연구원, 2002, 『장항-군산간 철도연결사업구간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현장설명회자료』, 철도청중부건설사업소.

둘째로, 종래의 지표조사에서 70여 개소가 조사된 패총유적이다. 이 가운데 군장국가공단조성지구에서 비응도와 노래섬 등 12개소⁹⁾와 성산면 여방리 남전¹⁰⁾, 내홍동¹¹⁾, 둔덕리¹²⁾ 패총 등이 조사되었다. 비응도 패총에서는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 문화층에서 두개골이 없는 상태로 인골이 수습되어 상당한 관심을 끌었으며, 빗살무늬토기·무문토기·홍도·점토대토기편 등이 각기 다른 문화층에서 출토되어, 이들 토기의 편년을 설정하는데 값진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 군산가도¹³⁾와 노래섬¹⁴⁾ 패총에서는 빗살무늬토기편부터 회청색 경질토기편까지 다양한 토기편이 수습되었으며, 전자에서는 백제 때 人骨이 수습되어 큰 관심을 끌었다. 성산면 남전 패총에서는 청동기시대 후기부터 6세기까지 7개 문화층에서 격자문과 승석문이 타날된 적갈색 연질토기편을 중심으로 기종이 다양한 토기류와 철기류, 골각기, 패각류, 동물유체 등이 출토되었다.

셋째로, 군산지역에 골고루 분포된 생활유적이다. 성산면 도암리와 고봉리, 서수면 관원리에서 청동기시대의 송국리형 주거지가 조사되었다. 오성산 남쪽 기슭에 위치한 도암리에서는 중앙에 타원형 구덩이가 마련된 원형계 주거지에서 무문토기편과 점토대토기편이 혼재된 상태로 출토되었다. 고봉리와 관원리에서는 원형계 혹은 방형계 주거지의 중앙에서 타원형 구덩이가 확인되었으며, 토기류와 석기류가 공반된 유물은 직립 구연과 평저인 송국리형토기가 주종을 이루었다. 호남지역 송국리형 주거문화를 크게 2단계로 구분한 다음 송국리형 토기를 I 단계로 점토대토기를 II 단계로 설정한 바 있다¹⁵⁾. 종래의 연구성과에 대입시켜 보면, 군산지역의 방형계 혹은 원형계 주거지는 송국리형 주거지가 가장 성행했던 기원전 5세기를 전후한 시기로 추정된다.

군산 성산면 여방리 남전과 개정면 아동리·통사리, 대야면 산월리에서 마한의 주거지가 조사되었다. 오성산 동쪽 기슭 말단부 성산면 여방리 남전 A에서 9기와 남전 B에서 2기 등 11기의 방형계 주거지가 조사되었다. 오성산 서남쪽 구릉지대에 자리잡은 개정면 아동리에서는 서로 중복관계를 이루는 3기의 방형계 주거지가 조사되었다. 개정면 통사리 ‘거산제’ 서북쪽에서 벽구가 둘러진 1기의 방형계 주거지와 여기서 동남쪽으로 1km 가량 떨어진 대야면 산월리에서 4기의 주거지가 조사되었다. 최근에는 성산면 대명리와 둔덕리에서도 마한의 방형계 혹은 장방형계 주거지가 상당수 조사되었다. 이들 주거지에서 격자문과 승석문이 타날된 적갈색 연질토기편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면서 여기에 철기류와 석기류, 골각기류 등의 유물이 섞인 상태로 출토되었다.

그런데 유물의 조합상에서는 유적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성산면 여방리 남전에서는 파수가 달린 원통형토기와 기대, 개배 등 회청색 경질토기편이 상당량을 차지하고, 여기에 흙구슬을 포함한 다양한 구슬류와 소형토기가 포함되어 있다. 개정면 통사리에서는 적갈색 연질토기편과 회청색 경질토기편이 공반되었지만, 전자가 유물의 절대량을 차지한다. 다른 생활유적

9) 湖南考古學會, 1995, 「群山地域의 貝塚」, 第3回 湖南考古學會 發表要旨文.

10) 西海岸高速道路發掘調査團, 1998, 『西海岸 高速道路 建設區間(舒川-群山間) 文化遺蹟發掘調査報告書』, 西海岸高速道路發掘調査團·韓國道路公社.

11) 全北大學校 博物館, 2001, 「군산 내홍동 패총」, 『遺蹟調査報告書』全北大學校 博物館 叢書 20.

12) (재)전북문화재연구원, 2003, 「군산 둔덕리 주택조성부지내 문화유적 시굴조사 약보고서」, (유)홍원주택.

13) 忠南大學校 博物館, 2000, 「群山 駕島 貝塚」, 韓國土地公社.

14) 圓光大學校 博物館, 2000, 「군산 노래섬 패총」, 韓國土地公社.

15) 이종철, 2002, 「湖南地域 松菊里型 住居文化」, 『韓國上古史學報』第36號, 韓國上古史學會.

과 달리 동남쪽 기슭 하단부에 입지를 둔 성산면 대명리에서는 주로 격자문이 타날된 적갈색 연질토기편과 회청색 경질토기편이 반절씩 섞인 상태로 출토되었다. 그러나 개정면 아동리에서는 회청색 경질토기편, 소형토기, 구슬류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적갈색 연질토기편만 출토되었다. 이처럼 유물의 조합상에서 차이를 보인 것은 시기적인 선후관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 생활유적의 중심연대는 대체로 3세기를 전후한 시기로 비정된다.

넷째로, 군산지역에서 가장 많이 조사된 분묘유적이다. 종래의 발굴조사를 통해, 그 성격이 밝혀진 분묘유적으로는 군산시 조촌동·미룡동·신관동·내흥동, 옥구읍 옥정리, 나포면 장상리·나포리·옥곶리, 성산면 여방리·창오리·도암리·둔덕리, 대야면 산월리, 개정면 아동리, 옥산면 당북리·서수면 관원리 등이 있다. 군산시의 전 지역에서 분묘유적이 상당수 조사되어, 군산지역의 고분문화와 그 변천과정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고고학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 군산 고분문화의 지역성을 강하게 보여준 대표적인 분묘유적의 조사내용을 유적별로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개정면 아동리와 술산면 축산리에서는 청동기시대 직립 옹관묘와 석관묘군이 조사되었다. 석관묘에서 마제석검과 석촉이 부장된 상태로 출토되어, 군산지역의 청동기시대 묘제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 즉 청동기시대 때 군산지역에는 지석묘보다 옹관묘 혹은 석관묘를 주요제로 채택한 토착세력집단이 있었을 가능성을 암시해 주었다. 더욱이 군산시 미룡동에서 등고선과 평행되게 동서로 장축방향을 둔 청동기시대의 석관묘가 지표조사 때 발견되어 관심을 끌었다. 오성산 동쪽 구릉상에서 상석의 평면형태가 방형에 가깝고 그 길이가 400cm 내외의 기반식 지석묘가 조사되었다. 그런가하면, 군산시 신관동과 옥구읍 선제리를 비롯해 여러 곳에서 10여 기의 지석묘가 더 분포된 것으로 밝혀졌지만, 그 밀집도는 서해와 마주하는 고창군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지역에서 처음으로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조촌동에서는 주구토광묘 2기, 석관묘 2기, 석곽묘 5기, 석실분 18기 등 27기의 고분이 조사되었다. 유물은 금동제이식, 생산활동의 일면을 보여주는 토기류와 철기류, 목관을 장식하는데 쓰인 관장식과 관못 등 모두 80여 점이 출토되었다. 성산면 여방리 기린마을 유적에서는 그 구조가 다른 88기의 다양한 고분이 조사되었는데, 석곽묘와 석실분 등 45기의 백제고분이 주종을 이루었다. 여기서 조사된 횡혈식 석실분은 백제가 수도를 부여로 옮긴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조영된 것으로 6세기 중엽을 전후한 시기로 편년되었다¹⁶⁾. 이처럼 이들 분묘유적에서 마한부터 고려까지의 유물이 다량으로 출토되어, 군산을 비롯한 금강 하류지역 묘제의 변천과정과 함께 마한의 54개 소국 중 두세 개가 군산지역을 무대로 발전했을 개연성도 암시해 주었다.

대야면 산월리에서는 토광묘와 옹관묘, 주구묘, 수혈식 석곽묘와 횡혈식 석실분 등 그 구조가 다른 고분에서 590여 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옹관묘와 주구묘 등 마한과 관련된 고분과 석실분을 비롯한 백제고분이 상당한 거리를 둔 상태로 조사되었다. 특히 분묘유적의 입지, 석실분의 축조방법, 석실의 평면형태, 연도의 길이와 방향, 유물의 조합상과 부장방법 등은 종래에 밝혀진 백제고분의 속성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이 유적은 마한부터 백제까지 묘제의 변천과정과 함께 마한이 백제에 어떻게 병합되었는가와 백제의 대내외 관문지로서 군산이 담당

16) 崔完奎, 1997, 『錦江流域 百濟古墳의 研究』, 崇實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했던 당시의 역할과 사회상을 밝히는데 좋은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 아울러 군산에 지역적인 기반을 두고 산월리에 석실분을 만들었던 토착세력집단이 백제의 중앙세력과 긴밀한 교류관계를 유지하면서 발전했을 개연성도 시사해 주었다.

고려시대의 횡구식 석곽묘와 조선시대의 토광묘가 조사된 분묘유적도 빼 놓을 수 없다. 옥구읍 옥정리, 미룡동, 성산면 도암리와 대명리, 나포면 나포리에서는 석곽의 폭이 넓고 벽석의 높이가 낮은 횡구식 석곽묘가 조사되었다. 특히 미룡동과 성산면 대명리에서는 횡구식 석곽묘에서 청자접시가 출토되어, 고분의 축조시기와 그 성격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 성산면 창오리와 대명리, 서수면 관원리에서는 분청사기와 백자가 토광묘에서 상당량 출토되었다. 조선 초기의 분청사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면서 분청사기의 종류와 기형이 매우 다양해 우리나라의 도자사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군산 내흥동 II-A-30호 토광묘에서는 청동수저와 저부에 ‘地’ 자가 음각된 백자발, 백자화형완, 백자접시 등이 벽감에서 출토되었다¹⁷⁾. ‘地’ 자명 백자발은 중앙 관요에서 생산된 것으로 당시 군산지역의 경제상과 사회상을 연구하는데 값진 자료로 평가된다.

다섯째로, 전주권광역상수도사업구역에서 상당히 중요한 두 개소의 문화유적이 조사되었다. 하나는 수혈식 석곽묘와 횡혈식 석실분, 민묘, 조선시대 저장공이 조사된 옥산면 당북리 유적이다. 산줄기의 정상부에 입지를 둔 석곽묘와 석실분은 모두 지상식으로 분구의 가장자리에 호석이 둘러져 많은 관심을 끌었다. 이처럼 분구의 가장자리에 호석이 둘러지고 지상식 매장주체부와 같은 유구의 속성은 마한의 묘제적인 전통이 계승되었을 것으로 짐쳐진다. 다른 하나는 토광묘와 주구묘, 옹관묘, 고려시대 건물지와 민묘 등이 조사된 군산시 신관동 유적이다. 군산 지역에서 백제의 옹관묘와 토광묘가 처음 조사된 곳으로 향후 군산지역 토착세력집단의 묘제 변천과정을 규명하는데 값진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 비록 상수도공사 구역에 포함된 일부 지역만을 대상으로 제한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값진 성과를 거두었다.

여섯째로, 마한부터 조선시대까지 그 조성시기와 성격을 달리하는 다양한 문화유적이 조사된 서수면 관원리 II-가 유적이다. 종래의 지표조사에서 문화유적의 밀집도가 매우 높은 곳으로 마한 주거지 28기와 수혈유구 10여 기, 횡혈식 석실분 1기, 고려부터 조선까지의 토광묘 5기, 석관묘와 구상유구 등이 조사되었다. 주거지는 대부분 화재로 폐기된 것으로 장란형토기를 비롯해 다양한 기종의 생활용기가 상당량 출토되어 주거지의 조성시기와 그 성격을 밝히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 특히 3호와 20호 주거지에서는 주거지의 벽면을 따라 시설된 연도부가 정연하게 확인되어, 노지와 연도부의 구조를 밝힐 수 있는 값진 자료로 평가된다. 산줄기의 정상부에 입지를 둔 횡혈식 석실분은 전형적인 웅진기 유형으로 당시 백제의 중앙과 재지세력과의 교류관계를 규명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군산지역 시대별 문화상의 특징을 보여준 고고학 자료가 쏟아진 내흥동 유적이다. 장항-군산간 철도연결사업구간 발굴조사에서 신생대 제4기 갯신세의 유기물 포함층 2개소, 구석기시대 문화층 1개소, 신석기시대 유물 퇴적층 2개소와 노지 1기, 마한 주거지 3기와 원형 수혈유구 60여 기, 백제시대 석실분과 석곽묘 2기, 매납유구 1기, 고려부터 조선까지 토광묘

17) (財)忠淸埋藏文化財研究院, 2002, 앞의 자료.

199기, 건물지 1기, 주거지 8기, 시대미상의 소성유구 5기와 수혈유구 6기, 저장공 2기, 경작유구 1개소 등 294기의 다양한 유구가 조사되었다. 이처럼 다양한 유구 중 III지점과 IV지점에서 확인된 구석기시대의 문화층과 유기물 포함층이 가장 관심을 끌었다. III지점에서는 우리나라의 중기와 후기 구석기시대에 해당하는 신생대 제4기 갱신세의 유기물 포함층이 확인되었으며, 그 위층에서는 격지를 비롯하여 후기 구석기시대의 석기류가 출토되었다.

3. 역사적 배경

1) 선사시대의 군산

군산에 언제부터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는가를 추정하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군산 내흥동 유적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군산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후기 구석기시대로 추정된다. 기원전 7,000년경부터 시작된 신석기시대의 초기에는 본격적인 농경 단계로 진입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신석기시대의 문화유적은 대체로 큰 하천변이나 해안가에서 주로 발견되고 있다. 금강의 관문인 군산은 크고 작은 섬들이 모여 있어, 이 시기에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곳이다. 이를 입증해 주 듯 선유도와 개야도, 가도, 내초도, 노래섬, 띠섬, 비웅도, 오식도 등의 도서지역에서 대략 20여 개소의 패총이 조사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농경생활은 기원전 1,000년을 전후한 시기에 청동기문화와 함께 시작되었으며, 기원전 700년 무렵에서야 비로소 정착농경 단계로 들어선다. 이 시기에 해당하는 문화유적으로는 성산면 도암리와 고봉리, 서수면 관원리에서 조사된 송국리형 주거지와 마제석검이 출토된 개정면 아동리 석관묘를 비롯하여 지석묘와 옹관묘, 패총, 유물산포지 등이 있다. 이들 문화유적은 장계산부터 영병산까지 뻗은 산줄기와 오성산 주변, 그리고 구룡지대가 발달한 개정면과 서수면 일대에 밀집되어 있다. 기원전 300년을 전후한 시기에는 고조선 유이민의 남하로 지석묘 사회가 급격히 해체되면서 마한 사회의 형성으로 이어진다. 한편 『삼국지』동이전 한조에는 마한에 모두 54개의 소국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마한의 영역이 오늘날 경기 서해안, 충남, 전북, 전남 등에 걸쳐 있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이들 소국은 현재의 군 단위마다 하나씩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중 군산지역에는 두세 개의 소국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문화유적으로는 격자문과 승석문이 타날된 적갈색 연질 토기편이 수습된 60여 개소의 패총과 200여 개소의 유물산포지, 군산시 조촌동과 신관동, 내흥동, 대야면 산월리, 성산면 둔덕리, 서수면 관원리에서 조사된 토광묘, 옹관묘, 주구묘 등이 있다. 이렇듯 군산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지정학적인 이점을 살려 신석기시대부터 삼국시대 이전까지 인근지역에 비해 선진지역으로 발전했을 개연성이 높다.

2) 삼국시대의 군산

삼국시대에 군산지역은 마한의 영토에서 백제의 세력권으로 편입되었으며, 그 시기는 온조왕 대라고 적혀 있는 『삼국사기』의 기록과는 달리 대략 4세기 중엽의 근초고왕대로 추정된다. 그의 남진정책에 따라 군산을 포함한 전북지역 일대가 백제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다.

오늘날의 군산지역과 관련된 곳으로 사기에 그 이름이 보이는 백제시대의 지명은 시산군, 마

서량현과 부부리현이다. 이들 지역은 삼국통일 후인 경덕왕 16년(757) 지방통치조직의 정비과정에서 임피군과 그 관할인 옥구현, 회미현(현재의 회현면)으로 각각 그 이름이 바뀌었다. 임피군은 또 이들 옥구현과 회미현 이외에 함열현까지도 거느리고 있었다. 요컨대, 오늘날과는 달리 이 지역의 중심은 임피였으며, 이 같은 체제는 사실 백제시대의 것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삼국시대의 군산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자료로 조촌동·신관동·내흥동, 성산면 여방리·도암리, 옥구읍 옥정리, 나포면 장상리, 대야면 산월리, 옥산면 당북리, 서수면 관원리 등 금강 유역 일대에서 발굴된 백제시대의 고분이 주목된다. 이들 중 성산면 여방리에서 은제 팔찌와 반지·순금제 화관장식, 조촌동에서 금동제 귀고리, 대야면 산월리에서 환두대도가 출토됨으로써, 이 무덤에 묻힌 주인공이 상당한 세력을 보유한 권력자임을 알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나포면 장상리와 대야면 산월리의 발굴성과는 인근 익산시 입점리나 옹포리 고분군과 마찬가지로 금강유역을 중심으로 유력한 지방세력이 활동했을 가능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들 토착세력집단은 분명 중앙과 일정한 관련을 맺으면서 성장한 세력으로 추정된다. 이들 세력은, 특히 백제의 수도가 한성에서 웅진으로 옮겨진 이후 이곳 금강유역이 대내외의 관문으로서 그 위상이 높아지게 됨에 따라, 이를 발판으로 중앙세력과 좀더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성장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삼국 말기의 이 지역의 상황과 관련하여 오성산의 전설도 빠뜨릴 수 없다. 이 전설은 금강 하구에 위치한 군산이 백제와 나당 연합군 사이에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던 격전지의 하나였음을 보여준다.

3) 고려시대의 군산

『고려사』에 의하면, 군산이라는 지명은 고려 후기에 와서 비로소 등장한다. 그것도 처음에는 군산도라는 이름이 오늘날의 군산지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고군산 지역을 가리키는 지명으로 먼저 사용되었음이 분명하다. 이 지역을 가리키는 명칭으로서 군산이 등장하는 것은 이보다 훨씬 뒤인 조선시대의 일이다.

고려시대에 군산의 중심이 되었던 곳은 오히려 임피현이었다. 임피현은 비록 고려 초에 현으로 강등된 처지였지만, 군으로 있었던 신라 때에 이어서 옥구현과 회미현을 그 속현으로 하여 관할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부윤현과 만경현까지도 관할하고 있었다. 당시 속현에는 수령이 파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현인 임피의 현령이 옥구현과 회미현 등을 함께 다스려 나갔다. 여기에서 임피현은 물론 오늘의 군산시 임피면에 해당하며, 옥구현은 군산시 옥구읍 일대, 그리고 회미현은 군산시 회현면에 각각 해당한다. 그리고 부윤현과 만경현은 오늘의 김제시 만경읍 지역에 해당하는 곳이다. 요컨대 오늘날과는 달리 당시 임피현은 옥구현과 회미현의 상위 행정구역으로서 이 지역의 중심지였던 것이다. 이 같은 임피 중심의 행정체제는 고려 말까지 거의 변함없이 지속되었다.

또한 임피는 조창이 설치된 서해안의 요충지였다. 고려 정부는 농민들로부터 거두어들인 조세를 수도 개성으로 운반하는 조운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남도의 해안과 강가에 모두 12개의 조창을 설치하였으며,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임피의 조종포에 설치된 진성창이었다. 조창은

곧 고려말 극심했던 왜구의 약탈 대상이 되었다. 진성창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공민왕대에는 왜구의 잦은 약탈을 피하여 내지 깊숙한 곳으로 옮겨지기도 하였다. 우왕 8년(1380) 5백척의 대선단을 이끌고 진포에 쳐들어 온 왜적을 대파한 진포해전에서의 승리는 왜구의 노략질에 치명타를 가한 것이었다. 이 싸움은 최무선이 만든 화포를 처음으로 사용하여 왜구를 격멸하였다는 점에서도 전사상 매우 큰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

4) 조선시대의 군산

조선시대에 들어와 옥구현이 임피현의 속현으로부터 독립하여, 임피현과 함께 옥구현에도 지방관이 파견되기 시작하였다. 회미현은 옥구현에 편입되었다. 읍의 규모는 고려시대에 이어 여전히 임피현이 옥구현보다 컸다. 전라우도에 속했으며, 인구는 18세기 후반의 경우 대략 4만 명 이상이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며, 다른 도시처럼 여자가 남자보다 많았다. 서울까지는 5일 내지 6일, 전주까지는 하루가 걸리는 거리였다.

군산지역은 군사적 요충지로 태조 6년(1397) 옥구현에 진이 설치되었으며, 첨절제사가 임용되어 인근 군현의 군사를 통괄하면서 옥구현의 통치를 담당하였다. 이후 군제가 진관체제로 개편되면서 세조 5년(1459) 옥구진이 혁파되고 현감이 임용되어 읍치를 담당하였다. 조선 초에는 옥구현에 전라도 수영이 설치되기도 하였다. 조선말까지 지속된 진포 수덕산 자락의 군산진은 선유도의 고군산진이 옮겨온 것으로 옥구진이 혁파될 무렵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만호(종4품)가 임용되다가 숙종 36년(1710) 첨절제사(종3품) 진으로 승격되었으며 군사와 조운을 관장하였다. 선유도에는 숙종 원년(1675)경에 군산진과는 별도의 진이 다시 설치되었다.

군산지역은 또한 조운의 요로로 군산창이 설치되었던 곳이다. 당시에는 육상교통에 많은 제한이 따라 세곡을 바닷길로 운송하였으며, 일찍부터 군산지역은 조창이 설치되어 세곡운송의 거점이 되었다. 중종 7년에 설치된 군산창은 용안의 득성창이 옮겨 온 것으로, 조선 초에는 노인성창이 있었다. 군산창은 영광의 범성창과 함께 전라도의 대표적인 조창으로 영·정조대의 경우 전주, 진안, 장수, 태인, 금구, 임실, 군산 등의 세곡을 관장하였다. 조선시대 군산의 역사는 조운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조선시대 때 군산을 빛낸 인물로 최호 장군이 있다. 그는 조선 중기의 무신으로 선조 7년(1574) 무과에 급제하고 1594년에 함경도 병마절도사가 되었다. 충청도 수군절도사로 재임 중이던 1596년 이몽학의 난을 평정하였으며,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칠천량해전에서 분전하다가 전라우수사 이억기와 함께 순절하였다. 그의 호국정신을 추모하기 위해 1729년 개정면 발산리에 사당이 건립되었으며, 1990년부터는 해마다 음력 7월 16일에 추모제를 지내고 있다.

5) 근대시대의 군산

군산이 대한제국의 칙령에 의해 개항된 것은 1899년 5월 1일의 일이다. 개항과 동시에 한국 정부는 옥구감리서 및 인천세관 관할의 군산세관을 설치하여 행정사무를 개시하였다. 이후 1906년 정부관제 개편으로 감리서가 폐지됨과 동시에 옥구군이 옥구부로 개편되었는데 이때

군산항만시설 확장을 위하여 강안을 매축하고 고정 기교 1기를 설치함으로써 비로소 근대적인 항구로서 시설을 갖추게 되었다.

한일합방 직후인 1910년 9월에는 조선총독부 지방관제가 발표되어 옥구부와 군산부가 개편되었다. 그 해 10월 1일 군산부청이 설치되면서 활기를 띠게 된 군산항은 이후 호남철도와 전주-군산간의 도로가 개통되면서 바다와 육지를 연결하는 편리한 항구로써 급격한 발전을 하게 되었다. 비옥한 토지에 자리잡고 있는 군산에 개항 초부터 일본인들이 앞 다투어 진출하여 농장을 형성, 확대해 나갔던 만큼 군산항은 쌀의 수출항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1920년대에는 한국의 전체 쌀 수출량의 20% 이상을 군산항에서 실어갔으며 1937년 중일전쟁 이후 한국이 병참기지가 되면서부터 쌀의 집산지인 군산지역은 다른 지역보다도 공출이 더 심하였다.

이렇듯 다른 지역에 비해 일본인 거주자의 수도 많고, 수탈의 강도도 높았던 군산이었기에 일인에 대한 저항의식도 그만큼 강하게 나타났다. 1919년 3월 5일 개정면 구암리 영명학교의 교사,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만세운동을 일으킨 이후 군산지역에서는 계속적으로 항일운동이 일어났다. 특히 군산항이 발달함에 따라 노동자 수가 증가하면서 정미소의 미선공이나 부두 노동자들의 노동쟁의를 비롯하여 일본인 농장주들의 과중한 소작료 납부요구에 대한 소작농들의 항쟁 등이 자주 일어나게 되었다. 이 밖에도 빼 놓을 수 없는 것은, 1937년부터 조선일보에 연재된 백룡 채만식의 『탁류』로서, 이 소설에는 미두장을 배경으로 1930년대 군산의 사회상과 생활상이 잘 묘사되어 있다.

Ⅲ 주변유적 현황 및 지명유래

1. 지명유래

1) **미룡동(米龍洞)** :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 3동이 관할하는 법정동으로 나운 3동의 남쪽에 위치한다. 1914년 행정 구역 개편에 따라 옥구군 미면의 용둔리, 미제리, 원당리 신촌 일부와 지곡리 일부, 서면의 옥정 3리 일부를 병합하면서, 미제리와 용둔리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서 미룡리라 하였다. 옥구군 미면에 편입되었다가 1940년 7월 1일 군산부에 편입되어 미룡정으로 개편되었다. 1946년 일본식 동명을 개정하면서 미룡동으로 바뀌었다. 1973년 나운 3동이 관할하는 법정동으로 편제되었다.

2) **신관동(新官洞)** :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 3동과 미성동에서 관할하는 법정동으로 미성동의 남동쪽, 나운 3동의 남서쪽에 위치한다. 1910년 군산부(群山府)에 편입되었다. 1914년 미면 관여산리(觀如山里) 일원과 신촌리, 완성리 및 개사리의 각 일부를 병합하고 신촌리 및 관여산리의 이름을 따서 미면 신관리가 되었다. 1980년 12월 1일 미면이 미성읍으로 승격되면서 전라북도 옥구군 미성읍(米星邑) 신관리가 되었다. 1989년 1월 1일 옥구군 미성읍이 군산시에 편입되면서 신관동이 개설되었고, 미성동 관할의 법정동이 되었다.

3) **점방산(占方山)** :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에 위치한 산으로 나운 1동과 해망동·소룡동·신평동 등에 걸쳐 있다. 점방산(占方山)의 명칭 유래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대동여지도』와 「1872년 지방 지도」를 포함한 거의 모든 고지도(古地圖)에서 화산(火山), 혹은 의송산(宜松山)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일제 강점기에 제작된 지도에는 봉화산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4) **미룡저수지(米龍貯水池)** :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동, 나운동, 지곡동에 걸쳐 있는 저수지이다. 이 저수지는 미제(米堤)저수지, 미룡(米龍)저수지, 은파(銀波)저수지 등 여러 개의 이름으로 불린다. 미제(米堤)는 한글로 쌀 방죽을 뜻하며, 미룡은 지명을 딴 것이다. 저수지의 정확한 축조 연대는 알 수 없다. 저수지에 대한 역사적 최초의 기록은 1530년(중종 25)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미제지는 옥구현 북쪽 10리에 있으며, 둘레가 1만 900백 10척’이라고 기록되어있다.

5) **미제천(米堤川)** :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동에서 발원하여 회현면 월연리에서 만경강으로 합류하는 지방하천이다. 금강권역 만경강 수계의 지방하천으로 만경강의 제1지류이다. 미제천은 마제저수지(현 미룡저수지)에서 발원하는데, 여기에서 천의 명칭이 유래되었다고 한다. 『대동여지도』에는 미제저수지에서 발원한 하천이 남류하여 만경강으로 유인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하천연장은 7.6km, 유로연장 8.82km, 유역면적 27.74㎢이다.

2. 주변 유적

1) 신관동 유물산포지 A (新觀洞 遺物散布地 A)

군산대학교 서북쪽에는 해발 26m를 최고봉으로 하는 구릉이 남북으로 이어져 있다. 이 구릉은 원당마을에서 400m 내외 지점에서 시작하여 신관마을까지 이어지는데, 구릉의 능선을 중심으로 유물산포지가 자리하고 있다. 유물산포지의 범위는 능선 전체가 해당하는데, 지표에서 수습되는 유물은 적갈색 연질의 원삼국시대 토기편이 대다수이며, 삼국시대 토기편이 소량 수습되었다. 이 일대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중요한 원삼국시대 유적으로 추정된다.

2) 신관동 유물산포지 B (新觀洞 遺物散布地 B)

신관동 유물산포지 A에서 서남쪽으로 114m 가량 떨어진 야산의 정상부와 그 주변지역에 신관동 유물산포지B가 위치한다. 야산의 정상부는 밭으로 개간되어 평탄한 지형을 이루지만 마을이 자리한 동남쪽 기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계단식으로 개간되어 원지형이 크게 변형되었다. 토기편은 야산의 정상부를 포함한 전 지역에 걸쳐 산재되어 있는데, 특히 남서쪽 기슭에 밀집 분포된 양상을 보인다. 야산의 정상부에는 무문토기편이 다량 수습되는 반면, 남서쪽 기슭에는 원삼국시대 토기편이 주로 수습된다.

3) 신관동 패총 B (新觀洞 貝塚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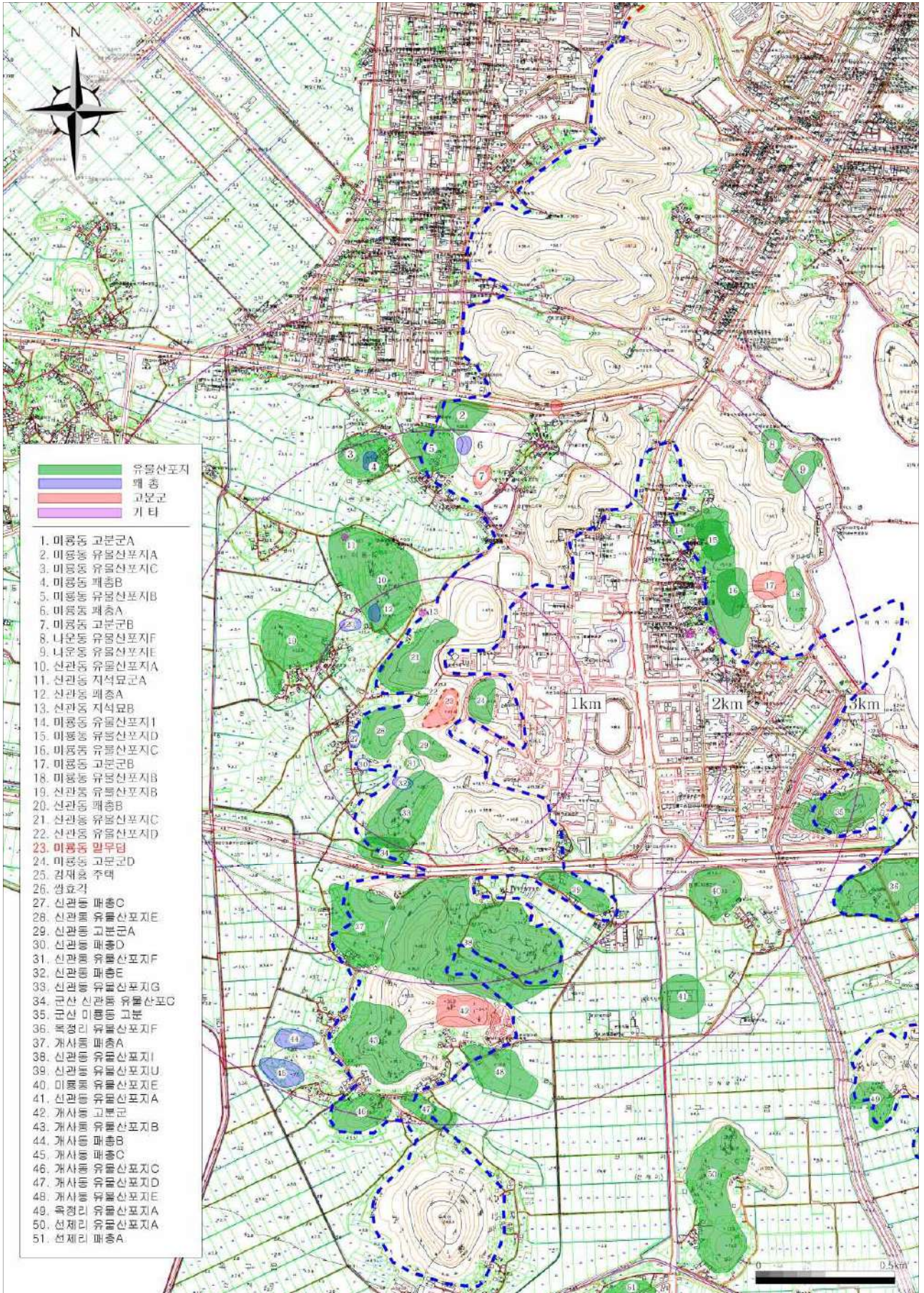
신관동 패총 A가 자리한 곳에서 서남쪽으로 30m 가량 떨어진 곳에 신관동 패총B가 위치한다. 다시 말해 민가(조재열씨 댁) 주변에서 서쪽으로 80m 정도 떨어진 경작지로 지표에서 다량의 패각이 산재되어 있다. 유적 내에는 패각과 함께 많은 양의 원삼국시대 토기편이 산재하는데, 격자문, 승석문 타날토기편 등이 대다수이다.

4) 신관동 유물산포지 C (新觀洞 遺物散布地 C)

월명산(해발 544m)에서 남북으로 길게 뻗어 내린 구릉의 동쪽에는 군산대학교가 자리하고 반대편 서쪽 기슭에는 광범위한 지역에 유물산포지 C가 위치하고 있다. 즉 신관마을의 중앙에는 창고가 있는데, 이 창고에서 동쪽으로 보이는 구릉 상에 많은 토기편이 산재한다. 토기편은 능선의 정상부에서 서쪽으로 흘러내린 기슭과 현재 밭으로 개간된 모든 지역에 산재되어 있다. 수습된 토기편은 무문토기편부터 회청색 경질토기편까지 그 종류가 아주 다양하나, 승석문과 격자문이 타날된 원삼국시대 토기편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5) 신관동 패총 C (新觀洞 貝塚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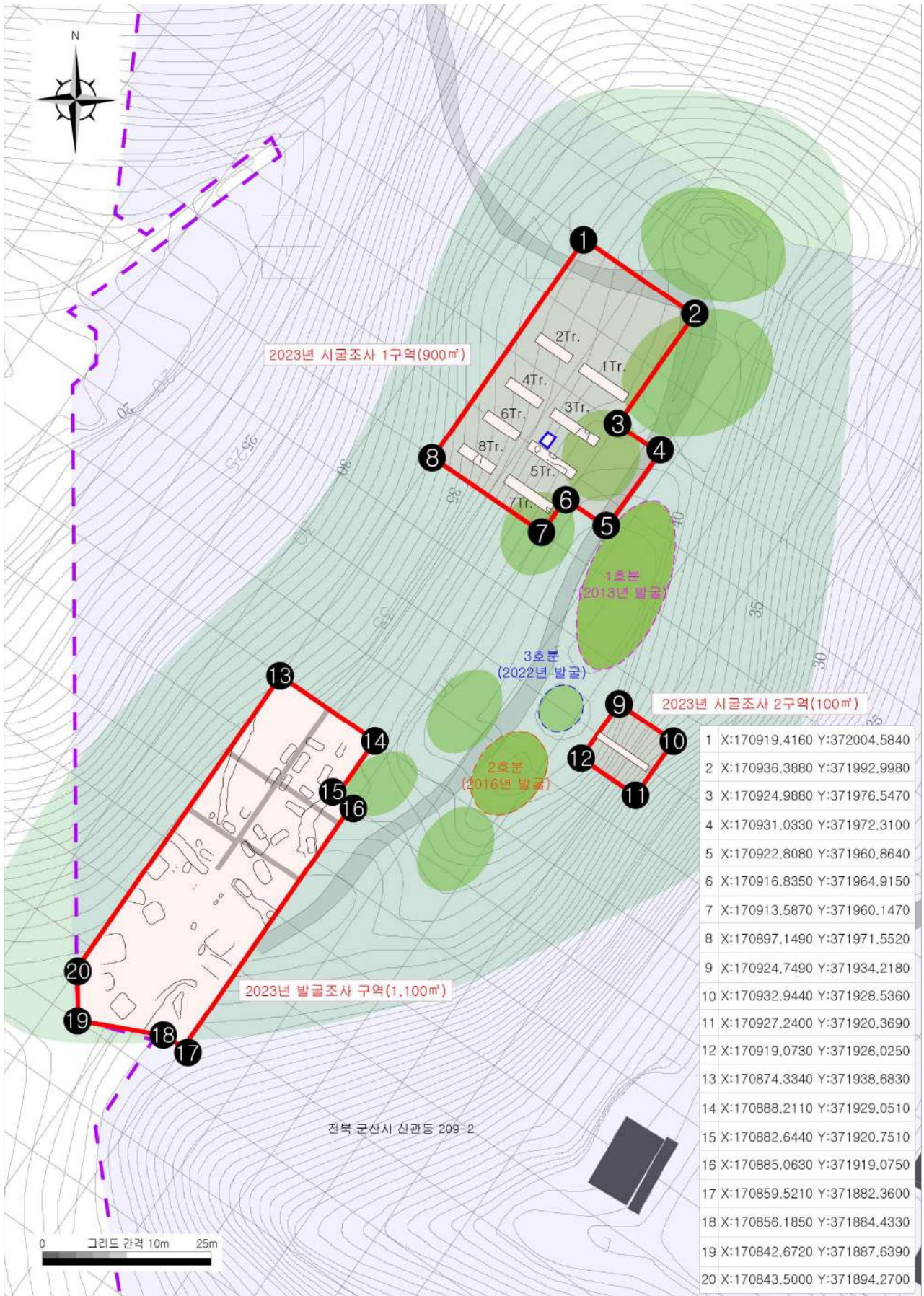
신관마을 중앙에 위치한 농협창고에서 시멘트로 포장된 소로를 따라 서쪽으로 약 50m 가량 이동하면, 도로 변에 민가(최정남씨 댁)가 나온다. 민가의 정면, 즉 남쪽에 자리한 밭에 신관마을 패총 C가 위치한다. 이 패총은 패총 D와 약 100m 정도 떨어진 거리를 두고 있다. 패각이 노출된 지역은 오래 전 밭으로 개간되어 소량의 패각만 노출된 상태이며, 몇 년 전에는 마을길을 시멘트로 포장하면서 일부 패각이 훼손되었다. 현재 마을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일대에는 다량의 패각이 노출되었으나 마을 주민이 닭 사료로 사용하기 위해 상당량의 패각을 반출하였다”고 한다. 이 일대에는 다양한 종류의 원삼국시대 토기편이 산재되어 있으며, 그 주변지역에도 기슭을 따라 위에서 흘러내린 다량의 토기편이 흩어져 있다.



지도 1. 조시지역 및 주변유적 분포도(1:25000)



지도 2. 大正 八年(1919년) 일제강점기 지형도



지도 3. 발굴조사 및 시굴조사 현황도

IV 조사 내용

1. 발굴조사

2022년 시굴조사가 이루어진 구역을 대상으로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조사결과, 분구묘(목관묘 17기·옹관묘 7기)와 주거지 7동, 구상유구 등이 조사되었다. 무덤유적과 생활유적이 공존하는 복합유적이다. 조사구역의 지형은 북고-남저로, 지대가 높은 북쪽에서 분구묘가 위치하며, 평탄한 남쪽에 주거지가 분포한다.



사진 1. 발굴조사 구역 조사 후 전경

1) 분구묘

분구묘(4호분)는 조사구역의 한계로 인해 2/3가량 조사되었다. 평면형태는 장타원형 또는 제형으로 추정된다. 서쪽 경사면을 중심으로 성토가 이루어졌다. 동남·서남쪽에 주구가 위치하며, 안쪽 대상부에 목관묘 17기가 분포한다. 4호분 대상부 동쪽에 후대에 조성된 또 다른 분구묘(5호분)의 주구와 매장주체부(목관묘)가 1기가 조사되었다.



사진 2. 분구묘(4호분) 동-서 방향 서쪽 구역 단면



지도 4. 발굴조사 구역 유구 배치도

① 주구

구지표면에서 풍화암반층까지 단면 ‘U’ 자형으로 파내어 마련되었다. 남쪽에 너비 9.1m 내외의 개구부가 있다. 너비 60~260cm 내외이며, 잔존 깊이 15~95cm 내외이다.



사진 3. 분구묘(4호분) 주구 전경 및 내부 퇴적 상태

② 목관묘

능선 정상부와 가까운 북쪽에서 조성되기 시작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평탄지와 가까운 남쪽으로 수평 확장된 것으로 판단된다. 목관묘 간 중복 양상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유물 간 시기 차가 거의 없어, 선대의 목관묘를 인지한 상태에서 후대의 목관묘가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목관묘의 장축 방향은 ‘서남-동북’, ‘동남-서북’ 으로, 이는 대상부의 잔존 공간을 고려하여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 목관묘를 조성하기 위한 굴광의 규모는 장축 길이 210~330cm, 단축 너비 98~210cm이며, 목관은 장축 200~290cm, 단축 50~80cm 내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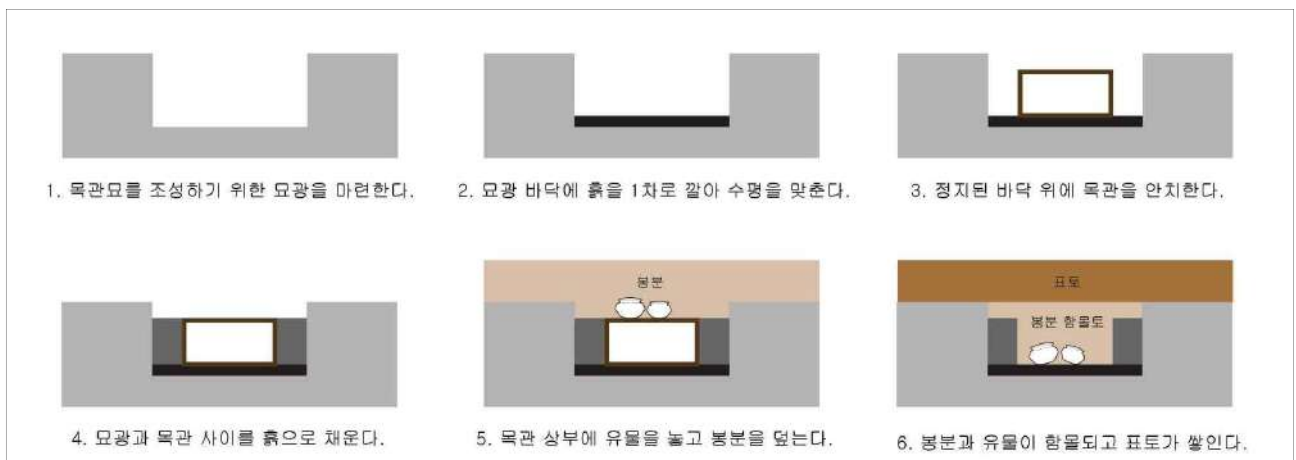


그림 1. 목관묘의 축조 모식도

연번	유구명	매장주체부 계원(cm)						장축방향	두향	유물	비고	
		묘광			매장시설							
		장축	단축	깊이	장축	단축	깊이					
1	4호분	1호 목관	(198)	98	(20)				서남-동북	서남	발형토기	
2		2호 목관	302	110	(46)	252	78	(24)	서남-동북	서남	단경호(2)	목관 흔적
3		3호 목관							동남-서북	동남		
4		4호 목관	290	120	(51)				동남-서북	동남	저부편(2)	
5		5호 목관	306	(123)	(31)				서남-동북	서남	흑색마연토기 · 단경호	
6		6호 목관	210	미상	미상				서남-동북	서남		
7		7호 목관	311	130	(35)				서남-동북	서남	단경호(2)	
8		8호 목관	280	123	(40)	220	80	(37)	서남-동북	서남	흑색마연토기 · 환두대도 · 철정(2)	목관 흔적
9		9호 목관	289	(110)	(50)	256		(40)	동남-서북	동남	단경호	목관 흔적
10		10호 목관	298	(128)	(46)	290	67	(40)	서남-동북	서남	흑색마연토기 · 환두대도 · 철도 · 농공구	목관 흔적
11		11호 목관	220	110	(23)				동남-서북	동남	흑색마연토기 · 경배	
12		12호 목관	(102)	130	(26)				서남-동북	서남	곡옥	
13		13호 목관	380	210	(42)				동남-서북	동남	단경호(2)	
14		14호 목관	268	102	(43)		50	(30)	동남-서북	동남?	흑색마연토기	목관 흔적
15		15호 목관	211	114	(21)				동남-서북	동남	저부편(2) · 철정(2) · 철도자 · 농공구	
16		16호 목관	(108)	123	(39)				서남-동북	서남		
17		17호 목관	303	123	(20)	200	70	(18)	동남-서북	동남	흑색마연토기	목관 흔적
18	5호분	1호 목관	237	98	(56)				남-북	북	단경호(2) · 철도자	

표 1. 분구묘 목관묘 조사 현황



사진 4. 분구묘(4호분) 대상부 내 목관묘 조성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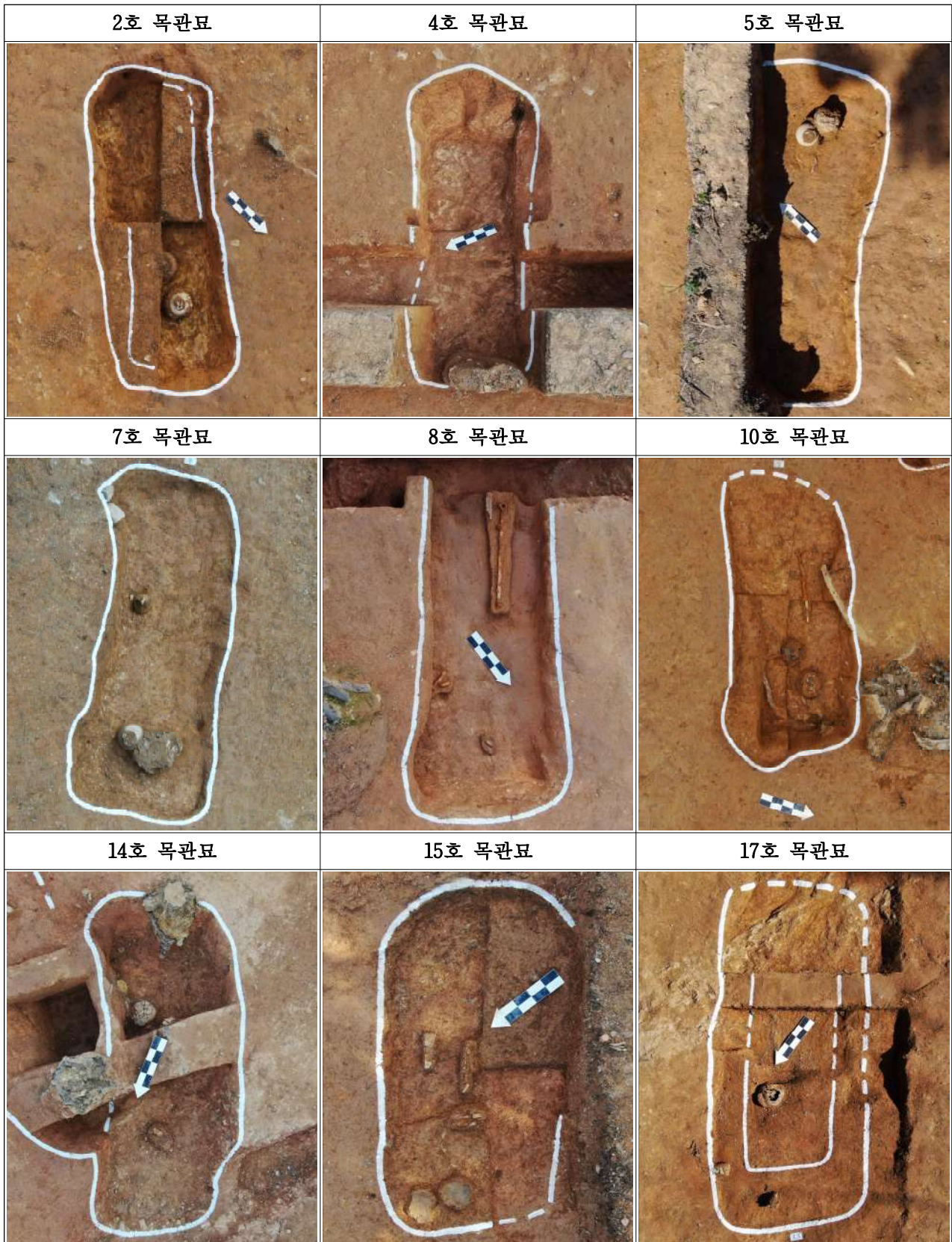


사진 5. 목관묘 근경

유물은 토기 2점이 기본적으로 부장되었으며, 철기가 출토된 것도 있다. 토기로는 흑색마연 평저광견호·경배·단경호·뚜껑 등이 있으며, 철기로는 환두대도·철정·소형농공구·철도자 등이 있다. 유물의 부장 위치 등을 고려할 때, 두향을 남쪽에 두고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p>2호 목관묘(토기)</p> 	<p>8호 목관묘(철정)</p> 
<p>10호 목관묘(환두대도·토기)</p> 	<p>12호 목관묘(옥)</p> 

사진 6. 목관묘 유물 부장 상태

<p>군산 미룡동 4호분 흑색마연토기 및 경배(광구소호) 5·10호 목관묘</p>		<p>김해 예안리 159호</p>	
			
<p>서울 가락동 2호분</p>	<p>해미 기지리 II-27호 분구묘 4호 매장주체부</p>	<p>무안 양장리 가-2지구 유물포함층</p>	<p>익산 사덕 33호 수혈</p>
			

사진 7. 목관묘 출토 유물 및 비교 자료



사진 8. 목관묘 출토 철기 유물 일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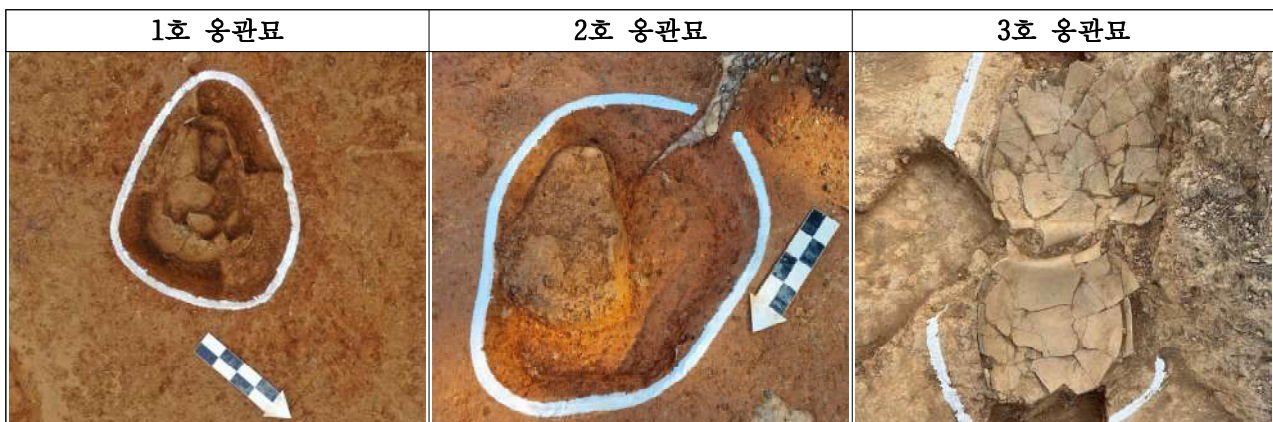
③ 옹관묘

옹관묘는 7기가 조사되었다. 모두 4호분 주구 밖(남쪽) 가장자리를 따라 분포하여 장축방향은

연번	유구명	유형	매장주체부 제원(cm)		장축방향	비고
			묘광			
			장축	단축		
1	1호 옹관	합구	90	81	서남-동북	
2	2호 옹관	합구	120	96	서북-동남	
3	3호 옹관	합구	125	(61)	남-북	
4	4호 옹관	단옹(?)	(78)	(49)	서남-동북	
5	5호 옹관	합구	(88)	(33)	서남-동북	
6	6호 옹관	합구	98	62	서남-동북	
7	7호 옹관	단옹(?)	168	92	서남-동북	발 매납

대체로 ‘서남-동북’이다. 구지표면을 얇게 파낸 후 옹관이 가로로 눕혀져 매장되었다. 옹관 조성에 사용된 토기는 대체로 일상생활에 사용된 호류이나, 7호는 매장을 위한 전용 옹관이 사용되었다. 합구식이 다수이며, 굴광은 장축 길이 90~168cm 단축 너비 62~96cm 내외이다. 7호 옹관 내부에 발(鉢)이 매납되었으며, 구연부에 인접하여 또 다른 발이 놓였다.

표 2. 옹관묘 조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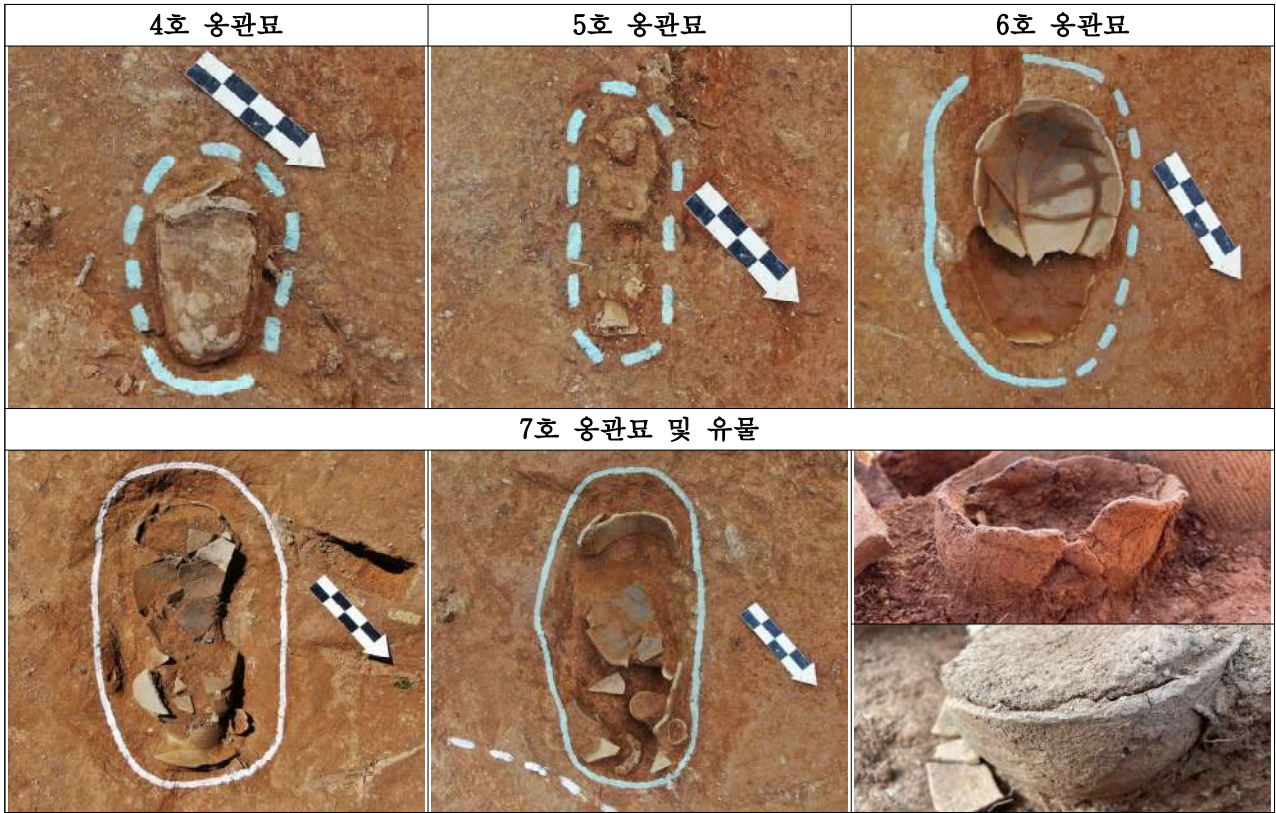


사진 9. 瓮棺묘 근경 및 유물 부장 상태

2) 주거지

남쪽 평탄지에서 7동의 주거지가 조사되었다. 평면형태는 말각방형으로 장축 길이 260~390 cm, 단축 너비 302~320cm 내외이다. 바닥면은 생토면을 다듬어 그대로 사용되었으며, 1호 주거지 서북쪽에서 노지로 추정되는 시설이 확인되었다. 주거지 내부에서 주공이 조사되지 않았으나, 주변에서 지름 8~22cm 내외의 주공이 정연성 없이 분포한 것도 있다.

내부에서는 주거지 내부에서는 경질무문토기와 함께 양이부호, 외면에 격자문 및 집선문이 타날된 토기편이 출토되었다. 특히, 1호 주거지의 경우 노지 주변에서 토기편이 다수 수습되었다.

연번	유구명	평면 형태	제원(cm)			내부시설	바닥면	유물	비고
			장축	단축	깊이				
1	1호	말각방형	352	302	(26)	노지 흔적	생토면	경질무문토기편 · 타날문토기편	노지 흔적 주변 토기편 집중 산재
2	2호	말각방형?	(264)	(108)	(44)	주공	생토면		주변 주공 확인
3	3호	말각방형	(390)	(372)	(32)		생토면	경질무문토기편 · 양이부호 · 발형토기편	
4	4호	말각방형	322	320	(16)		생토면	타날문토기편	
5	5호	말각방형?	344	(185)	(27)		생토면	타날문토기편	
6	6호	말각방형	350	(309)	(30)		생토면		주변 주공 확인
7	7호	말각방형?	260		(22)		생토면	타날문토기편	목관묘와 중복

표 3. 주거지 조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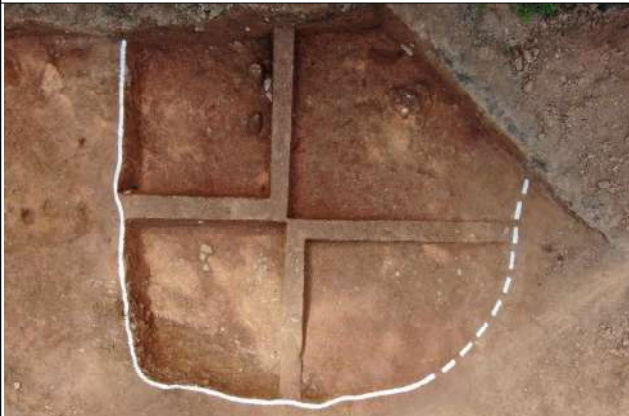


사진 10. 남쪽 주거지 구역 전경

1호 주거지 및 유물



3호 주거지 및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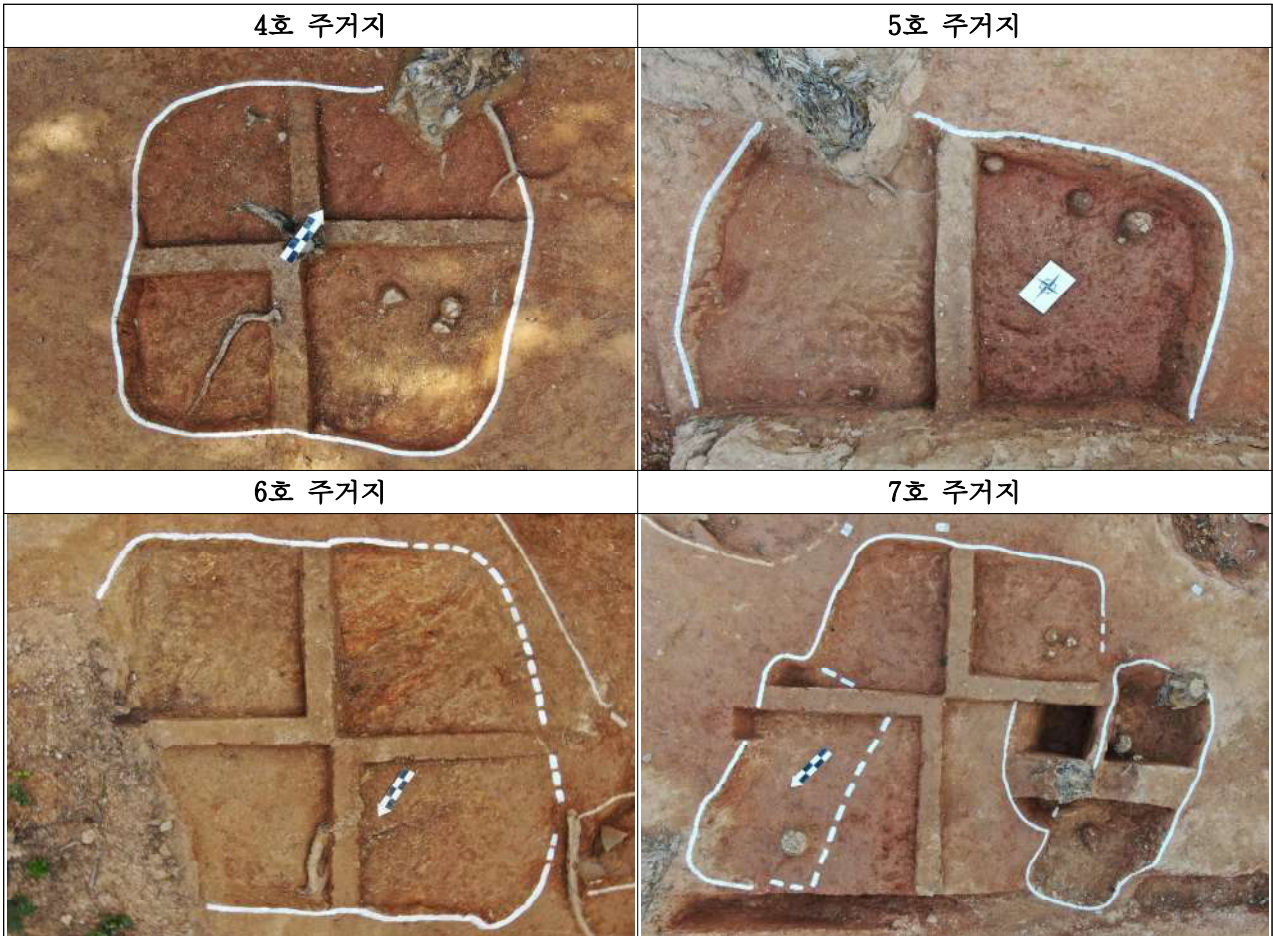


사진 11. 주거지 근경 및 유물 출토 상태

		양이부호			
군산 미룡동 3호 주거지	고창 남산리 5구역 가-6호 토광묘	고창 선동 유적 4호분 1호 토광묘	군산 미룡동 3호 주거지 경질무문토기편	군산 미룡동 4호 주거지 타날문토기편	

사진 12. 목관묘 출토 유물 및 비교 자료

3) 기 타



사진 13. 기타 유구 근경

그밖에 조사구역 남쪽에서는 용도를 알 수 없는 구와 수혈 등이 조사되었다. 일부만 조사되어 유구의 성격을 알 수 없으나, 주거지와 관계된 유구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동남쪽에서 조사된 6호 구시설은 주변에 분포한 또 다른 분구묘의 주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시굴조사

유구의 분포 현황을 추가로 파악하기 위해 고분군 서북쪽·동북쪽 경사면에 대해 등고선과 직교하는 방향으로 트렌치를 구획하여 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서북쪽 경사면에서 매장주체부와 주구로 추정되는 유구선이 확인되었으며, 주변에서 단경호·옹관 등이 노출되었다. 향후 이곳에 대해 발굴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또 다른 고분이 조사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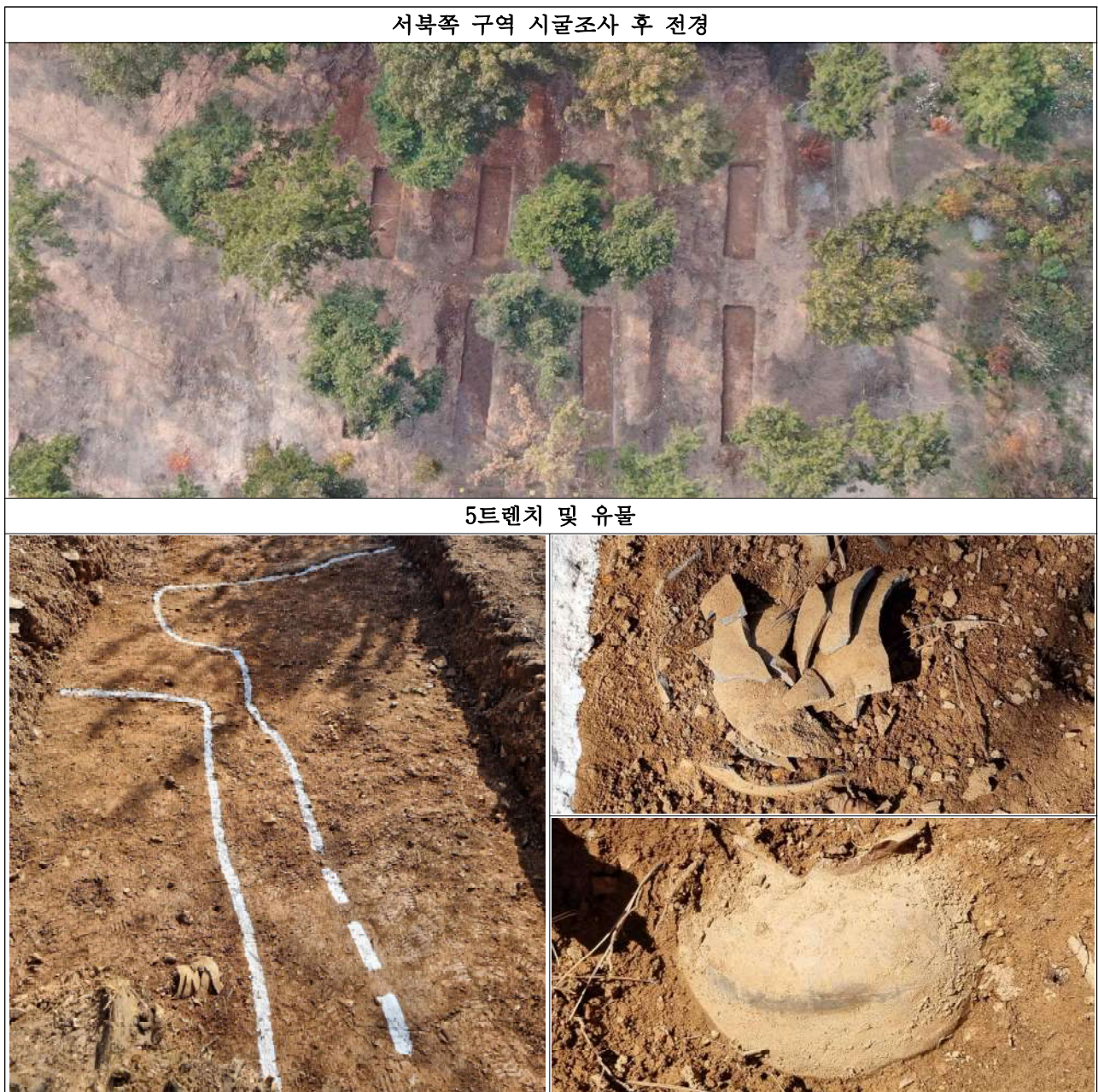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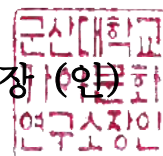


사진 14. 시굴조사 후 전경 및 트렌치 내 노출 유구 및 유물

V 조사성과 및 조사단 의견

- 금번 발굴조사를 통해 분구묘(목관묘 18기·옹관묘 7기)와 주거지 7동 등 생활유적이 확인되었다. 경사면은 묘역이며, 평탄지에 생활유구가 조성되었다.
- 분구묘(4호분)에서 분구(성토)가 확인되었다. 기존 1~3호분에서는 분구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금번에 확인되어 점차 전형적인 분구묘로 변화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목관묘(매장주체부)는 정상부에서 경사면을 따라 수평 확장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분구묘(4호분)는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을 근거로 4세기 대 조성된 고분으로 판단된다. 이는 기존 정상부에서 조사된 고분(2~3세기)들보다 시기가 늦은 것으로, 정상부에 이른 시기의 고분이 조성되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면부로 내려와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즉, 금번 조사된 분구묘는 군산 미룡동 고분군의 하한을 보여주는 유구이다.
- 분구묘(4호분)에서 출토된 흑색마연토기는 한성 백제와 지방과의 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자료¹⁸⁾이며, 경배(광구소호)는 김해 등 가야지역과의 교류 관계¹⁹⁾를 보여준다. 또한 철정·환두 대도·곡옥 등은 피장자의 높은 신분을 대변해준다.
- 주거지는 무주공식(無柱孔式)으로, 내부에서 경질무문토기와 타날문토기가 공반 출토되었다. 기존의 연구 성과²⁰⁾에 비춰보면, 3세기 대에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 금번 발굴조사를 통해 군산 미룡동 고분군의 성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군산지역 마한의 성장 및 매장 의례, 생활 모습 등을 보여줄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그동안 고분만 조사되어 ‘군산 미룡동 고분군’으로 불렸으나, 주거지 등 생활 유구가 확인되어 복합유적임이 밝혀졌다. 따라서 유적의 명칭이 변경되어야 한다.
- 분구묘(4호분) 일부만 조사되어 향후 주변에 대한 확장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시굴조사 구역에서도 유구가 추가로 확인됨에 따라 이에 대한 발굴조사도 추진되어야 한다.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장 (인)



18) 남상원, 2013, 「제작 기술을 통해 본 백제 흑색마연토기의 의미」, 『한국고고학보』 89, 한국고고학회.

19) 이유진, 2007, 「한반도 남부 출토 有孔廣口壺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 김은정, 2017, 『호남지역의 마한 토기』,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군산미룡동고분군발굴조사현황도

S = 1/300



※ ①투영법:TM ②방위:도북 ③투영원점:중부원점 ④본 좌표는 GRS80(X:600,000 Y:200,000)좌표임.

□ 군산 미룡동 고분군 1~3차 발굴조사 참고 사진(2013·2016·2022년)



군산 미룡동 1호분 발굴조사 후 전경



군산 미룡동 1호분 1호 토광묘



군산 미룡동 1호분 3·4호 토광묘



군산 미룡동 1호분 7호 토광묘



군산 미룡동 1호분 2호 용관묘



군산 미룡동 1호분 출토 토기류



군산 미룡동 1호분 출토 철기류



군산 미룡동 2호분 발굴조사 후 전경



군산 미룡동 2호분 1호 토광묘



군산 미룡동 2호분 2호 토광묘



군산 미룡동 2호분 3호 토광묘



군산 미룡동 2호분 1호 옹관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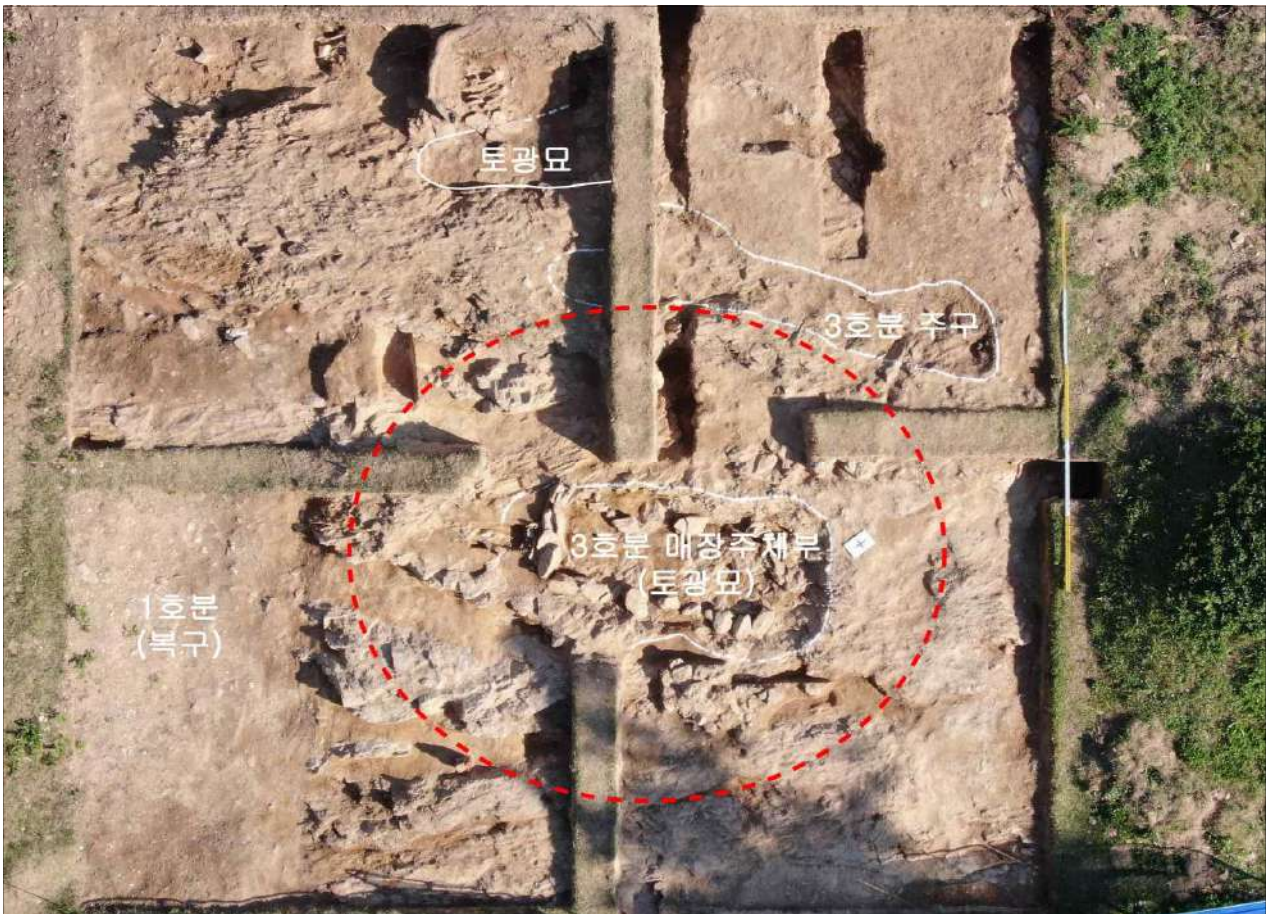
군산 미룡동 2호분 출토 토기류



군산 미룡동 2호분 옹관



군산 미룡동 3호분 발굴조사 후 전경(서북쪽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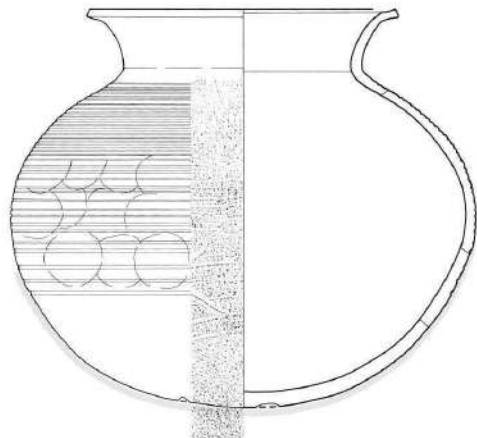
군산 미룡동 3호분 발굴조사 후 전경(직상방)



군산 미룡동 3호분 매장주체부 조사 후



군산 미룡동 3호분 목관묘 측면 고정 할석 및 목관 흔적



군산 미룡동 3호분 목관묘 출토 단경호 및 비교 자료(부안 백산성 6호 주거지)

2023년 군산 미룡동 고분군 발굴조사 출토유물 현황

1. 출토유물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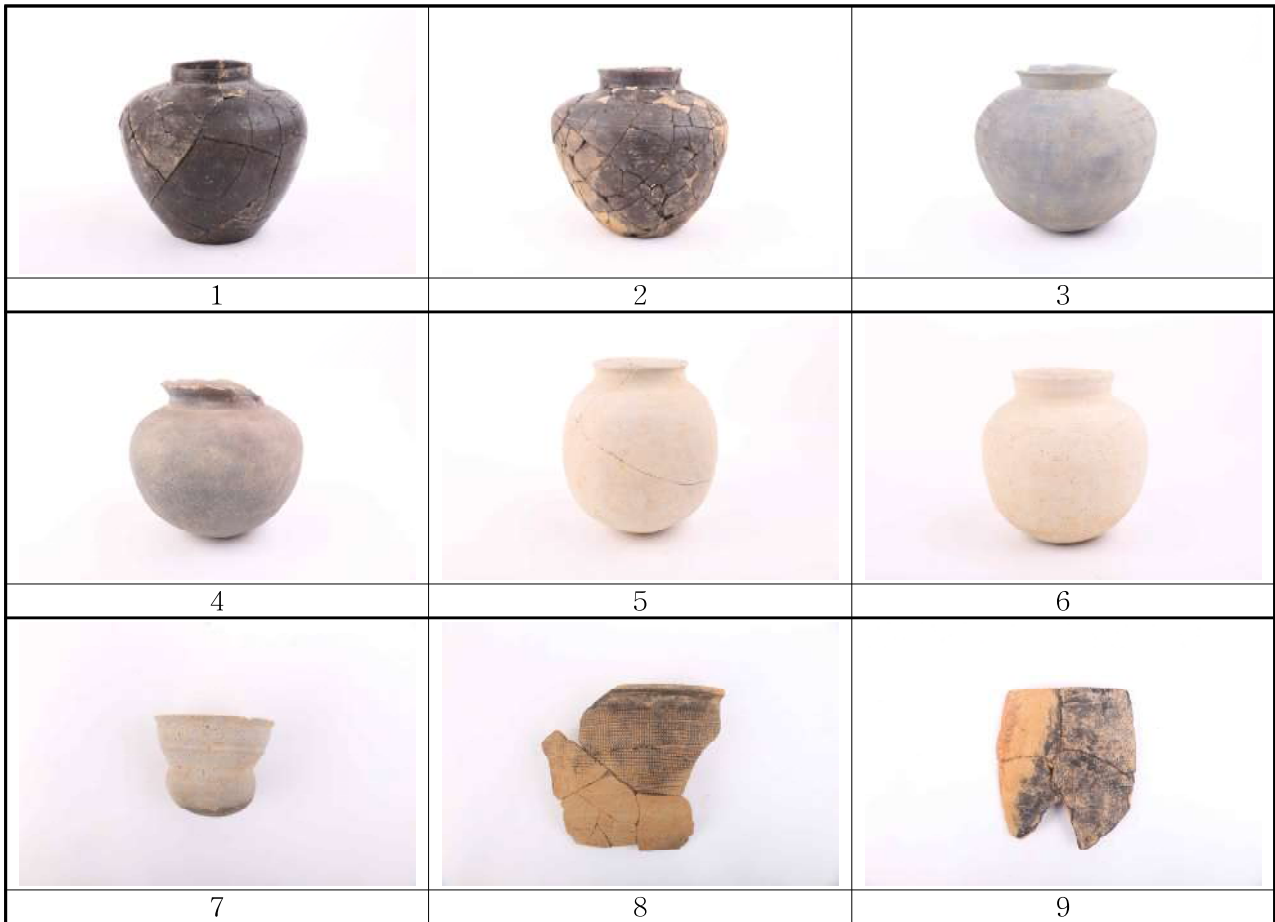
1-1 총괄표

재질별 구분	주요 출토 유물	수량	비 고
1. 금속		-	
2. 옥석유리		-	
3. 토도	흑색마연토기 등	9건 9점	
4. 골각		-	
5. 목죽초칠		-	
6. 기타		-	
계		9건 9점	14 박스

1-2 세부목록

일련번호	유물명	수량 (점)	유 물		크 기(cm)			비고 (출토지)
			분 류		기고 (길이)	구경 (폭)	저경 (두께)	
			재질	시대				
1	흑색마연토기	1	토도	삼국	20.2	9.3	11.3	4호분 8호 목관묘
2	흑색마연토기	1	토도	삼국	20.1	10.5	11.5	4호분 5호 목관묘
3	단경호	1	토도	삼국	21.1	14.2	(0.5)	4호분 7호 목관묘
4	단경호	1	토도	삼국	18.6	13.7	(0.8)	4호분 5호 목관묘
5	단경호	1	토도	삼국	23.1	12.3	(0.5)	5호분 1호 목관묘
6	단경호	1	토도	삼국	19.1	11.8	(0.8)	5호분 1호 목관묘
7	경배	1	토도	삼국	6.7	8.5	(0.3)	4호분 11호 목관묘
8	연질토기	1	토도	삼국	(18.2)	(19.2)	(0.8)	4호 주거지
9	연질토기 (경질무문토기)	1	토도	삼국	(13.3)	(12.0)	(0.6)	3호 주거지

2. 출토유물 사진





박스 5



박스 6



박스 7



박스 8



박스 9



박스 10



박스 11



박스 12



박스 13



박스 14(철기류 보존처리 중)